

2012년 6월 20일

보도 관계자 여러분께

일본전기 주식회사

한국 NEC사 설립에 대하여

NEC는 한국의 ICT시장에서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 NEC주식회사(소재지:서울특별시, 사장:오바나 에이지=尾花英二)를 설립했습니다. 영업활동 개시는 7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NEC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1960년대 전반부터 통신시스템, 방송시스템, 사회 인프라시스템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서울 주재원 사무소를 거점으로 삼아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첨단의 IT네트워크 환경을 정비하고 있으며 향후 초고속 인터넷 & 와이어리스 등의 발전에 따라 클라우드, 빅데이터, M2M 등의 새로운 서비스 사업이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NEC는 종래의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에서 당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린 IT네트워크 솔루션 서비스의 제안형 사업에 주력하기 위하여 현지 체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클라우드, M2M 서비스 및 당사의 장점인 지문, 얼굴인식 등의 생체인증기술을 활용한 기업용 시스템, 퍼블릭 세이프티 솔루션, 통신사업자를 위한 네트워크 솔루션의 제안, 구축 및 제공을 목표로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한국 NEC의 개요는 별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상

<본건에 관한 보도 관계자 문의처>
NEC 코퍼레이트 커뮤니케이션부 도다(戸田)
전화 03-3798-6511
E-mail : s-toda@cj.jp.nec.com

<한국 NEC 사 개요>

회 사 명 : 한국 NEC 주식회사(NEC Corporation of Korea)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설 립 일 : 2012년 6월 13일

영업개시일 : 2012년 7월 1일

대 표 자 : 오바나 에이지(尾花英二)

자 본 금 : 10억 원(약 7천만 엔) NEC 100%

종업원수 : 약 15명